

# BTS '골든디스크' 왕좌 굳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인기록을 썼다.

방탄소년단은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음반 부문 대상을 비롯해 음반 본상, 틱톡 골든디스크 인기상, 멤버 제이홉이 수상한 '타이 팬스 서포트 워드 바오지'까지 총 4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2018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음반 부문 대상을 받는 인기록을 세웠다. 2020년에는 음반·음원 대상을 석권하기도 했다.

그들을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겠다"고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힙합 아이돌로 데뷔해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구축해 빌보드 싱글·앨범 차트 1위를 모두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난 9년간의 궤적을 정리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로 활동 제1막을 마무리

태국 방콕에서 시상식 6년 연속 대상...인기상 등 4관왕 아이브, 신인상·음원 대상 3관왕

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제이홉은 "이 앨범('프루프')을 작업하며 지난 10년이 생각나면서 한 해 한 해, 한 앨범 한 앨범, 한 곡 한 곡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며 "우리와 아미(방탄소년단 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루프'라는 앨범이 나왔고, 여러분과 큰 미래를 그리는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상식 전날인 6일 입대한 집을 제외한 6명의 멤버들이 간만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제이홉은 "잠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며 "다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함께할 순간

을 그려보고 싶다"고 희망했다. 걸그룹 돌풍의 주역인 신인 아이브는 이날 신인상과 음원 부문 대상을 동시에 받아 총 3관왕에 올랐다. 아이브는 데뷔곡 '일레븐'(ELEVEN)부터 '러브 다이브'(LOVE DIVE)와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까지 3연타 히트를 기록했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서현주 PD는 제작자상을 품에 안았다.

이날 아이브 멤버 안유진, 리즈, 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멤버 가을은 "단기간에 값진 상을 받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다"면서도 "그만큼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다. 불안한 마음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아이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이브와 더불어 걸그룹 르세라핌과 뉴진스도 공동으로 신인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글로벌 스타로 도약한 세븐틴은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SBS 드라마 '법쩐' 이선균



## '까칠남' 대신 '상남자' 치열한 복수 나섭니다

악의 세력에 맞선 통쾌한 활극 첫 방 시청률 8.7% 상쾌한 출발

"겁이 나기도 했지만 대본을 읽어 보니 힘과 속도감이 있는 굵은 느낌의 장르물이라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이선균)

6일 첫 방송된 배우 이선균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는 통쾌한 활극의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SBS 드라마 '법쩐'에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은용(이선균 분) 역을 맡은 이선균은 최근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장르가 아니었고, 이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은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배역을 맡기 망설여졌다"고 했다.

이선균이 연기한 은용은 사모펀드 '체인지'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투자 총괄 책임자. 몽골에 은거하며 거액을 투자하는 고객들 앞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버는 삶을 살던 은용은 고향에서 들려온 뜻밖의 소문을 접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건 복수를 시작한다.

이선균은 "초반에는 은용이 마치 판타지 속 영웅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영웅적인 설정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견어냈고, 시청자분들께서 몰입할 수 있도록 '인간미'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은 작품의 관전 포인트로 화려한 액션을

꼽았다. "6부까지는 회차마다 큰 액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이제 더는 신체 회복이 빠른 나이가 아니어서 걱정도, 부담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선균은 "드라마 특성상 영화를 찍을 때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액션을 연습하지는 못했지만, 액션팀 스태프들이 설계를 너무 잘 해줘서 그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은용과 함께 손잡고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박준경 역은 문체원이 맡았다. 검사 출신 육군 법무관인 박준경 소령은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은용과 힘을 합친다.

'법쩐'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여왕의 교실' 등을 집필한 김원석 작가가 극본을 맡고, 영화 '악인전'을 만든 이원태 감독이 첫 드라마 연출을 맡은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원태 감독은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돈과 권력을 두고 다투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좋았다"며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정의는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주면 참 좋은 드라마가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거워 보이는 주제이긴 하지만 중간 곳곳에 긴장과 반전, 액션 등 볼거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이원태 감독)

한편은 '법쩐'은 8%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법쩐' 첫 회 시청률은 8.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OTT콘텐츠에 1235억원 투입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제작 지원·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예산을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4% 증액한 규모다.

지난해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을 지난해 116억원에서 454억원으로 늘리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사업은 국내 제작사와 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

(IP) 공동 보유와 국내 OTT를 통한 1차 방영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총 40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과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OTT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 등 후반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해 특수시각효과(VFX), 컴퓨터그래픽(CG), 번역·더빙, 장애인 시청각 화면해설 방송 등 후반 작업 지원에

3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신기술 활용이 필요한 장르물 수요 급증에 따라 VFX,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기획·개발'에도 5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문제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제작 지원 성과를 이어나가려는 취지다.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오른 '재벌집 막내아들'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작품이다. 웨이브 가입자를 확대한 '위기의 X'와 왓츠에 공개돼 일본 시청률 1위에 오른 '충정지란'은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작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